

### 34. 혼란, 불안, 거짓말 & 믿음에 대한 공격.

2015.03.30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클레어) 오늘밤 기도에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 계셨고 피범벅이셨어요. 저는 주님의 왼쪽 십자가 위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옆에 있었어요. 주님은 항상 저의 오른쪽에 있으세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후 주님은 땅에 서셨고 저는 주님의 품안에 있었어요. 저희 둘다 가시관을 쓰고 있었고 주님은 흐느끼고 계셨어요.

(예수님) 괴로워, 괴로워, 괴로워. 내가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괴로워. 오 클레어, 나를 위로해줘. 나는 정말 너가 나와 오늘 함께 있기를 원해.

(클레어) 정말 죄송해요 주님, 제가 더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너는 지금 여기에 있고 나는 기뻐. 나와 함께 있어라. 내가 너의 시야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라. 특히 지금은.

그 때가 가까워질 수록 믿음과 희망에 대한 공격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그 공격은 점점더 사악해질 거야. 방언에 대한 거짓말은 사탄이 일으키려고 준비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에 대한 공격은 정말 사나울 거야. 나는 너희들 모두가 일어서서 준비하기를 원해. 너희들의 하나님이 옳다고 고집하고 내 옆에 있어라.

그 뜻은 모든 공격들을 거짓말의 벽에 못박고 그것들이 너희들의 마음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거야. 그들을 즐겁게 만들지 말고 성경구절로 달아나게 해라.

‘그러므로 그 어떤 무기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며 그 어떤 사람이 너를 비난하여도 너는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내 종들을 변호하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와의 말이다.’ (이사야54장17절)

나의 신부들아, 나의 명예를 지켜라. 사탄 앞에서 나를 변호해라. 나는 일어날 일들을 너희들에게 말하였어. 내가 너희들을 데려갈 것이라고 말하였어. 사탄은 너를 불신과 절망에 빠지게 하여 사탄이 너희들의 영혼을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일련의 시도를 할 거야.

나 혹은 나의 영광스러운 그릇에 대한 의심, 두려움, 비방을 일으키는 어떤 것도 믿지 말아라. 극도의 두려움과 혼란의 순간을 사탄이 이용하여 너희들의 믿음을 파괴하려고해.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을 느낄때, 너희들은 악마들을 다루고 있는 거야. 나는 너희들이 너희들 자신이 처한 감정상태에서 벗어나 억압자를 쫓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야.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러한 것들과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들을 압도할 수 있어.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불러야해.

나의 명예를 지키고, 너희들이 진실이라고 분별한 것을 굳게 붙잡고,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을 적에게서 비틀려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사탄의 교묘한 논쟁과 추론을 듣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현실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낄때 일어서서 싸워라. 그것들이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에 가라앉지 않게 해라.

우리는 이곳에서 전쟁중이며, 이것은 사탄이 포로들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사전경계가 사전무장이야. 자주 기도해라. “주님, 저희를 악에서 구해주세요.”

평화와 기쁨을 방해하는 것은 모두 악마의 소행이야. 너희들이 두려움을 느낄때, 멈춰라. 나의 말을 사용하여 그 거짓말을 파괴해라. 두려움, 걱정, 불안, 의심, 공황,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을 무력화시키고 파괴시키기위한 무기들이야. 의심, 두려움 그리고 혼란은 악마가 개입하였다는 신호야. 그들이 견고한 거점을 얻기 전에 칼을 들어 그들을 파괴해라.

그들은 시도할 것이지만, 그들이 한 방향에서 너희들에게 올 때 나는 일곱 방향에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너희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흩어버리고 도망치게 할 거야. 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협력이 필요해.

클레어 내 안에서 안식하려고 노력해라. 내가 정말로 너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노력해라. 이말은 매우 중요하니 제발 잠시라도 너의 마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알겠지?

(클레어) 저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흔들리기 시작하였어요. 저는 말하였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가 도와줄 거야. 이 메시지는 평화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해. 너는 적들이 우리가 함께 이룬 선을 되돌리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이것으로도 이미 알 수 있어. 기쁨을 흠치고, 소문을 퍼뜨리고, 내가 이 때에 지혜를 준 너와 모든 예언자들을 모욕하려고해. 너는 적들이 성공하도록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되. 나와 나의 명예를 지켜라. 나의 왕국으로 기쁨과 온전함과 행복함으로 나의 신부들을 데려오기 위한 나의 신실함과 헌신을.

(클레어) 저희는 외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 이러한 것들은 내가 너에게 보냈던 최근의 메시지를 이미 더럽혔어. 나의 신부들아, 영향들로인해 너희들은 너희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있어. 너희들의 영이 어떠한 불안함을 느끼면 너희들은 공격을 받고 있는 거야. 적들이 너희들의 기쁨과 평화를 빼앗아

달아나지 못하게 해라. 칼을 들고 전투를 해라. 이 기간이 오래 지속되지은 않을 것이지만 강렬할 거야. 사전경계는 사전무장이야.

(클레어) 주님? (저는 아직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대답하셨어요.)

(예수님) 내가 통신시설을 보호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어?

(클레어) 하지만 그들은 다른 움직임을 실행하기전에 처음으로 EMP로 공격한다고 말해요. (전자기기, 인터넷, 컴퓨터등 모든 통신을 무너뜨리는 전자기 펄스공격)

(예수님) 내 사랑아, 그들이 말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비교할 수 없어. 나는 그들의 방식보다 위에 있고, 나는 인터넷을 사용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자녀들과 접촉할 거야. 그래, 정전이 발생하여 통신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거야. 그것은 일시적일뿐이야. 클레어, 나를 신뢰할 수 있어? 너의 자만심이 다시 일어났어. 너는 그것을 옹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부끄러운줄 알아라.

(클레어) 죄송해요. 저는 단지 여기에 적들이 들어오지 않았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는 것이예요.

(예수님) 나는 그것에 대해 너를 칭찬하지만, 나는 그 이상을 봐. 그 중 일부는 실제로 너의 인간적인 추론이야.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너가 너의 신을 의심할때에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본질적으로 너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거야. “주님 확실하세요? 제 말은 EMP가 그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것인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가 어려워요. 확실하세요?” 너의 추론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알겠어?

(클레어) 네 주님, 죄를 인정해요. 죄송해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야?

(클레어) 네, 하지만 제 뜻은 저의 자만심이 처음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제발 그 자만심을 저에게 상기시켜주세요. 네?

(예수님) 그렇게 할게. 하지만 너의 자만심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너에게 그 자만심을 상기시킨다면, 음,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야. 그렇지?

(클레어) 예수님께서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요..

(예수님) 나는 그렇게 말해. 자, 이제 좀 웃자. 나는 너와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걸 좋아해. 너가 마음속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는 것은

단지 재미있어. 게다가 내가 너의 마음 속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것은 너에게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도 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볼 수 있어.

(클레어) 주님 말씀은 이렇게하는 것이 저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원숭이들은 나무에서 그네를 타?

(클레어) 그것이 원숭이들이 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맞아. 나는 이스라엘을 다룬지 수백년이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완고한 불신앙 백성들이야. 그러니 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한 두가지를 알고 있지 않겠어? 그러니 이제 넘어가자.

(클레어) 오 주님, 감사해요. 조금 부끄러워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내 사랑아, 너의 잘못들은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이고, 내가 전에 너에게 말하지 않았어? 나는 이 능력범위에서 나를 섬길 가장 부족한 후보자를 찾았고 그리고 너를 찾았다고? 이제 부끄러워할것이 무엇이 있어? 너는 너가 얼마나 고유하고 특별한지 보여?

(클레어) 감사해요 주님. 네, 저는 저의 특별함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님) 한 순간도 내가 너를 덜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사실, 이것은 너 그리고 자신의 작음을 보는 나의 모든 신부들을 사랑하게해. 이것이 릭조이너(Rick Joyner)가 말하는 겸손의 웃이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 말할 때도. 너무 공허하고, 빈곤하고, 나약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운명의 표시야. 천국에서 그것은 크게 구별되어져. 나는 모든 나의 신부들이 그렇게 보았으면 좋겠어.

그것은 너희들에 대한 공격의 주요 문을 닫을 거야. 너희들도 보다시피 적들은 항상 폄하하고 거짓말해. “너는 정말 멍청해. 너는 아는것이 뭐야? 너가 누구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너에게 이야기한다고? 농담하지마. 너는 실패자야. 너는 절대로 어떤 것에도 미치지 못할 거야.” 그런다음 사탄은 질투로 죄를 짓도록 선동하기를 좋아해. “저기를 봐봐. 이제 그들은 훌륭하고 자격이 있지만 너는? 너는 절대로 어떤 것에도 미치지 못할 거야. 너가 믿는 모든 것은 어쨌든 거짓말이야. 너는 알게 될 거야.”

나의 신부들아, 이 불안함의 문이 얼마나 활짝 열려있는지 보여? 그 문을 닫고 싶어? 이렇게 말해라. “그래, 모든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논쟁이 끝나고 그 목소리들은 달혀!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

내 사랑들아, 이제부터 만약 그 목소리가 나의 본성을 비방하려고 한다면 나는 너희들이 나를 변호해주기를 기대해. 일어나서 나의 명예를 방어해라. 너희들이 그 목소리를 그렇게 달아버릴때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것인지! 나는 압제자가 너희들에 대해 계획한 공격에 맞서 싸우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어. 제발 집중해서 들어라.

나의 신부가 너희들에게 해줄 말이 있어. 그렇지 클레어?

(클레어) 흠..?

(예수님) 아까 나한테 뭐라고 말했어?

(클레어) 잊어버렸어요.

(예수님) 많은 교사들과 목소리들에 대해서?

(클레어) 아 맞아요. 저희는 휴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거짓말에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신부들로부터 수많은 편지들을 받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저는 호기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아요. 여러분은 악을 삼으로 퍼나르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통제하고 있으세요.

저희 모두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저희가 모두 휴거되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원해요. 저희 모두는 그것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어해요! 저희 모두는 휴거와 관련된 많은 것들에 대해 확신을 원해요. 하지만 이것은 영적 소화불량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정리해야해요.

때때로 저희는 불안함으로 찾아헤매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이 진리를 받았고 그것이 기름부음을 받았음을 증거할 때 다른 것을 계속해서 찾지 말라고 여러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약한 믿음과 불신의 표시예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꼭 붙잡고, 호기심이 여러분을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세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여러분이 저지르기를 원하는 거의 모든 죄에 호기심을 이용해요. 사탄은 선한 사람들이 악한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탄은 여러분을 호기심을 가지게 만들고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출처를 여러분이 조사하게 할 수 있어요. 특히 지금 주님께서는 사탄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탈선시키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세요. 저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조심해야해요.

만약 저희가 건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 출처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이 저희들의 이해에 기여하였다면, 의심스러운 다른 출처의 물들을 마시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세요. 저는 제가 불안과 호기심으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주 주신 성경구절이 생각났어요.

‘자신의 웅덩이에서 물을 마시고 자신의 우물에서 신선한 물을 마셔라.’ (잠언5장15절 직역)

그리고 이 성경구절은 부도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교사들과 정보의 출처에도 적용되요. 감염된 물에서 벌레를 잡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특히 지금같이 위험이 가장 높을 때예요.

(예수님) 나의 신부들아, 내가 추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 만약 이 말들을 신실하게 너희들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한다면, 나는 너희들을 두려움에 빠뜨리는 적의 함정에서 너희들을 보호하는 것에 신실할 거야.

나의 축복이 너희들 모두와 함께해. 아무것도 너희들을 두렵게하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해라. 너희들은 나의 신부들이야.